

오늘 진안~무주 동부권고원 지질공원 현장실사

환경부 27일 인증 여부 결정 내년 1월 고창~부안권 실사

전북도는 진안~무주의 동부권 고원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를 14일까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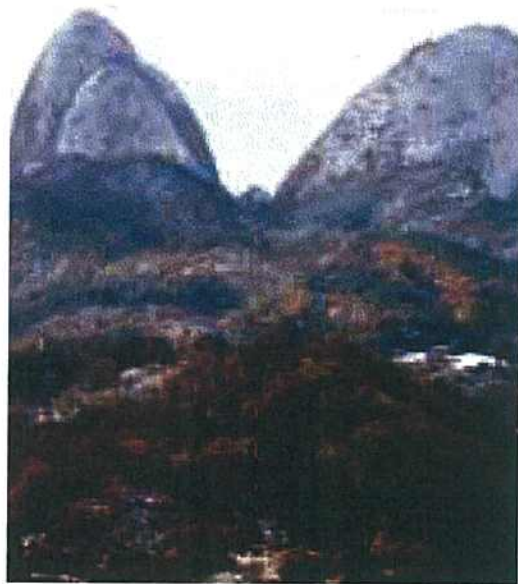
13일 도에 따르면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교육과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한다.

실사에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지질학적 가치, 기반시설구축, 자체평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27일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진안은 큰 자갈이 봉우리를 이루고 무주는 화강 편마암(천연기념물 제249호)이 산재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으로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구천동, 용추폭포 등이 있다.

또 서해안인 고창~부안권에 대한



현장 실사는 내년 1월 시작된다.

이곳은 드넓은 갯벌을 비롯해 산악과 해안지대가 어우러져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채석강, 적벽강, 모항, 위도, 운곡습지, 선운산 등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제주도, 부산, 울릉도·독도, 청송, 무등산, 강원평화지역 등 6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박정미기자 jungmi@